

돌고래 이야기

일년 중 가장 화창한 기후를 자랑하는 5월의 주말, 果川의 서울大公園은 가족동반의 나들이가 한창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動物의 세계를 인식토록 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 어린이들이 自然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인바 아무쪼록 일요일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TV와 전자오락과 같은 기계문명에서 탈출하여 自然을 체험하도록 해야한다. 그러한 면에서 서울大公園의 가치는 막대하다고 하겠다. 大公園에 있는 動物중 가장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돌고래일 것이다. 人間 다음으로 知能이 발달되어 있다는 돌고래가 우리 나라에도 선을 보인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돌고래도 역시 인간의 利己的 行動으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 * *

우리가 흔히 “돌고래”라고 부르는 해양포유동물은 Dolphin과 Porpoise를 뜻한다.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Dolphin과 Porpoise 이외에도 Killer Whale, Pilot Whale 및 Minh Whale 등을 통칭하여 “소형 고래”(Small cetaceans)라고 부른다. 이들은 물론 고래와 같이 해양포유동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주로 沿岸에서 생활하며, 또한 가족성 또는 사회성이 강한 것이 大型 고래와는 다른 점이다.

돌고래는 대형 수족관에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일찌기 海洋生物學者에 의하여 그 生態와 心理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 돌고래는 세계 곳곳의 수족관에서 관람객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映畵에서 主演役(?)을 맡은 바

이상돈 / 중앙대법과대학교수法博

“

돌고래도

인간의 이기적 행동으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

도 있는데, 수족관과 영화 속에서의 돌고래는
실로 관람객을 敎育하기도 한다고 보겠다.

돌고래는 상당한 지능을 갖고 있어서 훈련된
돌고래는 바다에서 잃어 버린 물건을 찾거나 또
는 바다 밑의 시설물과 연락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알
고 있는 돌고래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가
장 아름다운 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 * *

모든 종류의 돌고래를 포함한 소형고래도 오
랜 기간에 걸쳐 남획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기
드문 몇몇 종자의 소형 고래도 남획된 탓으로
희귀하여 졌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돌고래
를 食用한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하기에도 역겨

운 일이지만 아직도 소련과 일본은 食用을 목
적으로 돌고래잡이를 하고 있다. 한때, 소련의
黑海에서만도 연간 10 마리의 돌고래가 포획되
곤 하였다 한다. 세계 각지의 수족관에서 쇼를
하기 위한, 또는 生物學者들의 연구·실험용으
로 쓰일 돌고래를 산채로 포획하는 것은 그숫
자 자체로는 심각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국지적
으로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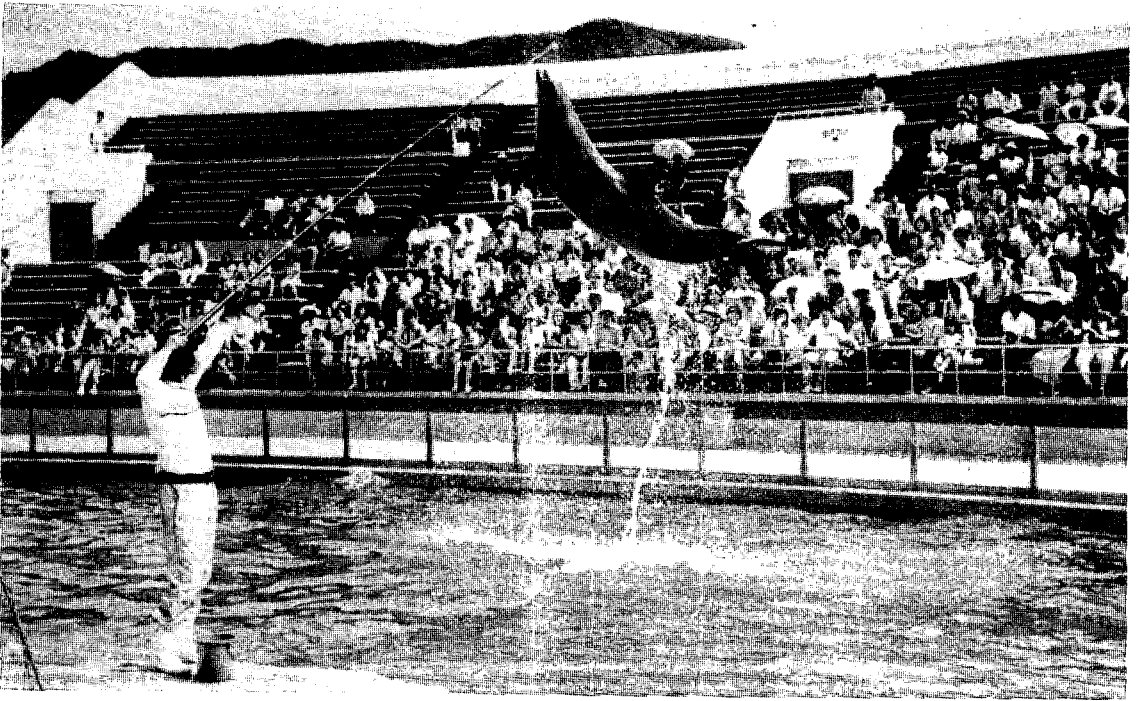
그러나 돌고래가 희생되는 가장 중대한 원인
은 참치(tuna)漁業과 관련하여서이다. 돌고
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서 희생되는 수가 종종
있지만 그 숫자는 결코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
다. 하지만, 赤道 부근의 동부 태평양에서 많이
잡히는 참치(yellowfin tuna)는 어떠한 이유어



“

미국의회가
1972년에
「해양포유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고래보호에
나섰다.

”



서인지 세종류의 돌고래 (spotted porpoise, spinner porpoise, white bellied dolphin) 와 같이 曲遊하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이유로 참치 船團은 이를 돌고래 떼를 쫓으면서 참치잡이를 하였던 것이다. 즉 망망대해에서 이를 돌고래 떼를 보고서 참치잡이 漁船들은 그물을 내렸던 것이다. 돌고래는 포유류 동물이고 따라서 공기를 호흡하여야 한다. 따라서 참치떼와 함께 그물속에 갇힌 돌고래들은 질식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참치船團이 조업을 하고 떠난 바다에는 속절없이 죽어나간 수많은 돌고래의 시체로 뒤덮혔던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돌고래가 이러한 경위로 매년 학살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美國政府는 60年代말부터 自國 船團에 의한 돌고래의 피해를 조사하였는데 1971년과 1972년에는 각각 연간 30만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희생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로 돌고래의 대학살이 아닐 수 없었다. 그후 美國政府의 규제와 지도로 1975년 이후로는 年間 10만마리 이하로 그 숫자가

줄어 들었는데 이는 美國 議會가 1972년에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한편, 北太平洋에서의 日本의 연어 船團의 조업과정에서도 한때는 年間 2만마리의 돌고래가 희생되었다. 이것 뿐만 아니라 日本이 전성기에는 연간 3만마리의 돌고래를 食用을 목적으로 직접 포획하였다. 한다.

* * *

돌고래의 희생은 그것이 주로 참치어업의 부수적 산물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로 인하여 돌고래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가고 있으며, 특히 몇몇 種子는 혹시 멸종되지 않나 하는 우려까지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여하튼,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도 역시 인간의 지나친 功利的 欲求 때문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단지 부수적으로 그 많은 돌고래가 죽어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造物主에 대한 모욕과 生態界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